

광주·전남 최악 가뭄위기 극복 절수운동 호소

동북댐 저수율 28.43% · 주암댐 저수율 30.29%

강시장 “내년 3월 부터 제한급수 비상상황 갈 수도”

전남 ‘대체수원 · 해수담수’ 중장기 가뭄 해결책 추진

강기정 시장이 최악의 가뭄 속에 시민들의 절수운동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강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세기 최악의 가뭄으로 우리 시는 전례 없는 가뭄과 물 부족의 극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뭄 상황은 여전히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올 겨울 강수 전망 역시 동북댐과 주암댐의 부족한 저수율을 채우기에는 여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기준 동북댐의 저수율은 28.43%, 주암댐의 저수율은 30.29%이다.

강 시장은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부터 가뭄 재난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비상행동 단계를 선언하고 생활 속 20% 물 절약 노력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셋째주 전년 동기 대비 수돗물 생산량이 1%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넷째주 1% 감소, 11월 첫째주 2.4% 감소, 11월 둘째주

2.4% 감소, 11월 셋째주 5.6% 감소, 11월 넷째주 6.2% 감소, 12월 첫째주 8.2% 감소, 12월 둘째주 8.7%까지 줄었다”고 덧붙였다.

일일 수돗물 생산 규모로 보면, 하루 50만 생산에서 45만 규모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현재 절수율 8.7%가 유지될 경우, 당초 내년 3월 말 고갈 예정이던 동북댐 고갈 시점도 내년 5월 14일로 예상된다.

강 시장은 “물 사용량이 큰 쪽으로 줄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는 비상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가뭄 위기 극복에 나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목표치까지 함께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49년 만의 극심한 가뭄

으로 제한급수가 도내 전역으로 시행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캠페인 전개, 대체수원 확보, 수도요금 감면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가뭄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도서지역에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완도, 신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비비 41억원(예비비 13억원·특별교부세 28억원)을 지원한다.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 금일·널도·소안면 등은 내년 1월부터 급수 차량을 추가 운영해 물 공급량을 확대하고 내년 2~3월까지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돌봄·공공의료 분야 주제 월요대화 강기정 시장 “시의회와 큰 타협 통해 발맞춰 보겠다”

강기정 시장이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월요대화 회를 진행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오후에 열린 이번 월요대화는 돌봄·공공의료 분야를 주제로 돌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노동자 교육·교류 활성화 지원, 돌봄시설·시설공공병원 운영 개선, 지역맞춤형 보건 의료정책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장은 “이 자리는 강 시장이 노동계의 노동교섭 요구에 대해 월요대화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며 “돌봄과 공공의료 현장 노동자의 작은 변화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준수, 교육·교류활성화 지원, 광주형 장기요양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장은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유행 등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는 재원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장기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광주시가 함께 큰 타협을 통해 발맞춰 보겠다”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DJ센터서 16일 광주형일자리 토론회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309호에서 2022 광주형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방향 설정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광주시의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박병규 관광구청장,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학계·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1부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광주형일자리 성과와 대안 방향,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 평가센터장이 지역 차원에서의 일자리 혁신모델 구축사례와 광주형일자리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회에서는 강수훈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모 그린카진흥위원장, 전인영남대 교수, 이찬영전남대 교수, 윤상용 조선대 교수, 고창운 빛그린산단 노조위원장, 유미현 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이 의견을 나눈다. 2부에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대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 다양화 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다.



도민 행복만 으뜸 일자리 창출 협력 13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화재 피해·조류독감 특단 대책’

김영록 지사는 1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무장 정책회의에서 “화재 피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므로 이에 철저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주택화재와 산불이 잦아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소방당국이 고생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만큼은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시 화재 발생부터 진화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타 지역보다 전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인가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바닥에 까는 왕겨나 계절사 직원 왕래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많았던 사례를 잘 살펴 방역선상에서 놓친 경우가 없는지, 역학조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종배 기자

‘한국 관광 100선’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담양 죽녹원 선정

5번째 선정...대표 관광지로 인기·명성 확고히 다져

곡성의 대표 관광지 ‘섬진강기차마을’과 담양의 대표관광지인 죽녹원이 ‘한국관광 100선(選)’에 5회 연속 선정됐다.

곡성군과 담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지난 2013년부터 이번까지 ‘한국 관광 100선’에 5번째 선정됐다.

섬진강기차마을은 등룡문화재인 옛 곡성역사와 1998년 전라선 복선화로 폐선된 일부 구간을 활용해 탄생한 기차 테마파크다.

놀이시설 드림랜드, 도깨비마을 테마로 꾸민 요술랜드,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장미정원에는 매년 5월이면 1004종의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다양한 축제가 펼쳐져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다. /곡성·이상석·담양·조승채 기자

담양의 대표관광지인 죽녹원은 이번 선정으로 2015년부터 5회 연속 선정되며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지난해 60만 명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죽녹원은 31만㎡(9만4000여 평)에 이르는 대숲 산책로와 함께 사군자정원, 시가문화촌, 이이남아트센터 한옥체험장, 한옥카페 등 시티 기능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변모해왔다.

광주 시립미술관장 임용 시행 계획 재공고

원서 21~27일 접수

광주시가 개방형직위인 시립미술관장직 임용 시행 계획을 재공고했다. ‘적격자 없음’ 결론 뒤 석달여 만이다.

광주시는 13일 시립미술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총 5년 범위 내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임무는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과 상설전시회 관한 사항,

전시 관련 국내외 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 관련 작품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중외공인·상록근린공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하정웅미술관·광주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류전형인 1차는 오는 30일,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서류심사+면접)는 내년 1월 3일이다.

선발위원회 심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만 개별 통보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다. /김도기 기자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